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05/19~2025/05/25]

2025.05.26

[로봇] 휴머노이드 이야기로 가득했던 HDS 실적

- 조선소에 휴머노이드 투입. HD현대페르소나 AI 협력 이어, HD현대미포의 에이로봇과 협력.
- 테슬라, 옴티머스의 다양한 동작 수행에 이어, AI 기반 작업 수행 능력까지 과시
- 대선 후 로봇 관련 정책 모멘텀 기대

[방산] 다가오는 모멘텀 가득한 6월

- 이제는 부품의 직수출 시대. 엠앤씨솔루션의 인도 L&T 부품 계약 체결
- 주가 상승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 규모는 2.9조원으로 확대
- 트럼프의 골든돔, 그리고 주한미군 이전 검토 이슈

[항공] 1Q25 노선별 운임단가 추이

- 항공사들 단독 노선 운영 확대. 경쟁 피해 틈새시장 공략
- 중국 단체 관광객 방한 기대감 확대. 중국 노선 공략
- 지연되는 소노의 티웨이 인수. 에어프레미아는 타이어뱅크로

[조선] 풍부한 상선 수주 모멘텀

- LNGC 아니어도 풍부한 수주 모멘텀. 인도 VLEC, ONE 컨선 등
- 한화오션, 필리조선소 매출 10배 성장 목표 제시
- 특수선 수출 모멘텀은 방글라데시아와 루마니아로 확장



Weekly Keyword

휴머노이드 이야기로 가득했던 HDS 실적

이제 일본의 대표 감속기 업체인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즈의 실적 발표에서 전통 산업용 로봇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힘들. 미래 먹거리인 휴머노이드 사업에 주력하는 모습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1)

[휴머노이드 이야기로 가득했던 HDS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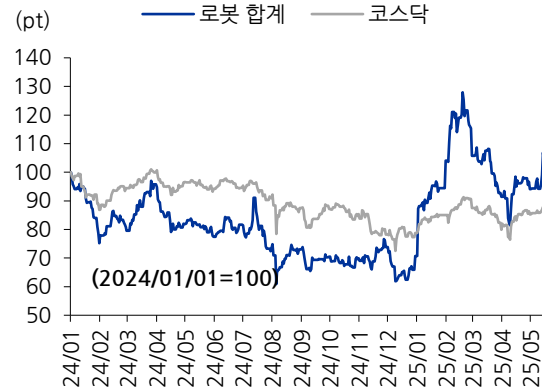
- 일본의 대표 감속기 업체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의 24년도 결산 발표 진행. 실적 발표는 이례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내용으로 가득
- 동사는 현재 벤처 기업을 포함해 복수 기업 향 양산 공급 확정 계약을 체결. 아직 양산 물량 규모는 작지만, 26년 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작년 단기간내 100~200억엔 규모의 매출 발생 기대 내비친 바 있음. 단순히 하모닉드라이브 감속기 납품에 그치는 것이 아님. 액츄에이터 공동 개발 등 역할 범위 확장되고, 특히 충분한 힘을 갖춘 로봇 핸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초소형 감속기 공급에 주력할 전망

Key Chart: HDS가 노리는 휴머노이드 감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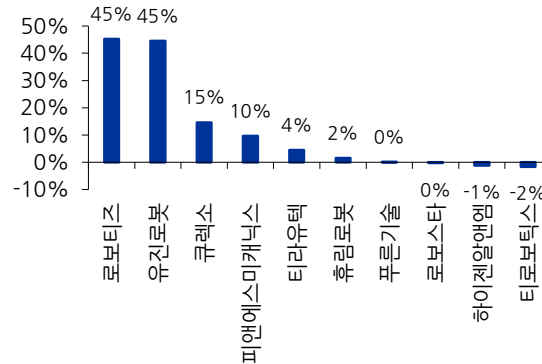
쌍안 (스피드)	로봇 핸드 (파지력, 작업성)	하지 (효율, 저전력)
<p>双腕ロボットの主な4つの運動</p>		
경량/컴팩트/중공	소형/고정밀	고효율
쌍안 X 6축 = 12축	5지 X 3축 = 15축	양 다리 = 8축 이상

자료: HDS,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5/19~05/25)

[산업용 로봇]

- HD현대미포, 에이로봇과 조선소서 일할 휴머노이드 개발
- 유일로보틱스, 자동차 부품사에 41억원 로봇 공급
- 나우로보틱스, 인천 남동산단에 제2공장 확보 추진

[서비스 로봇]

- 현대차그룹-인천공항, 전기차 충전 로봇 기술 검증 협력
- 뉴빌리티-라이온로보틱스, 사족보행로봇 서비스 개발 협력
- 큐렉스, '해외 5개국 단일 심사' MDSAP 인증

[기타(정책/부품/SW)]

- 민주 경제성장위 "로봇 정책금융 신설-국산로봇 공공구매"
- 씨메스 "산업 자동화, 피지컬 AI 로봇으로 사업 재편"
- 원익로보틱스, 5세대 로봇 손 CE 인증 획득
- 테솔로, 로봇 핸드 앞세워 美 시장 공략 출사표
- 티로보틱스, 진공이송모듈 흑자전환 견인
- 레인보우, 1Q 영업손실 14억원. 연구개발비 증가

[Global]

- 테슬라, 옵티머스의 AI 기반 다양한 작업 수행 영상을 공개
- 보스턴 다이내믹스, DHL에 물류로봇 1,000대 공급
- 美 UC샌디에이고, 휴머노이드 전신 제어 프레임워크 개발
- 엔비디아, 휴머노이드용 모델 'GROOT' 업그레이드
- 중서 세계 최초 '로봇 격투기 대회' 개최 예정
- 中 산업용 로봇 1분기 회복세 뚜렷. 판매량 12% 증가
- 中 애지봇, 하반기 휴머노이드 양산 예정. 최고 7천만원



Weekly Keyword

다가오는 모멘텀 가득한 6월

방산 주 흐름 소강 상태이나, 6월 기대감 재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 대선 이벤트 이후 정치 불확실성 제거되며 이연된 수주 계약 체결 가능성 높고, 유럽 나토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지출 목표 상향 전망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테디(29)

[다가오는 모멘텀 가득한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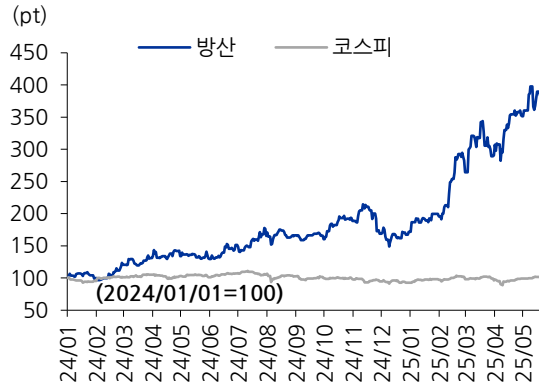
- 방산 주에 대한 관심 소강 상태. 그러나 모멘텀 가득한 6월이 다가오는 중. 방산 업종에 대한 관심 유지 필요하다는 판단
- 6월 초 대선 이벤트(한국, 폴란드)에 이어, 6월 24~25일 유럽에서는 나토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
- 대선 이벤트 종료 후 정치 불확실성 제거 등으로 이연되던 주요 수출 계약들 체결될 가능성 높다는 판단.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 상향 조절이 이루어질 전망. 기대감만 가득하던 유럽 수요 증가에 확신을 실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함

Key Chart: 6월 주요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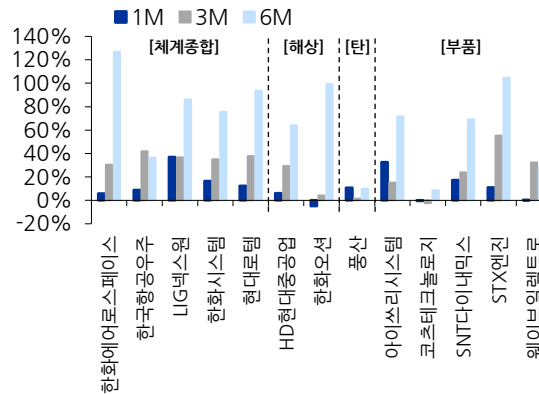
구분	내용
6월 1일	폴란드 대선 결선 투표 예정
6월 3일	한국 대선 투표 예정
6월 24~25일	나토 정상회담 개최 예정
수주 기대감	폴란드 K-22-1차, 필리핀 FA-50 등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5/19~05/25)

[수주/계약]

-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5월도 불발'
- 엠앤씨, 印 L&T社와 K9자주포 부품 직수출 계약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주가 상승에 유증 규모 2.3조→2.9조로
- 폴란드군 한국서 '천무' 교육 수행
- 한화에어로-WB그룹 합작사 '청사진' 공유
- KF-21 양산기 최종 조립 착수. 26년 하반기 1호기 납품
- KAI·LG넥스원,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 참가

[기타]

- 美, 주한미군 4천500명을 인태 다른 지역으로 이전 검토
- K-방산 4사, 1분기 연구개발비 3,000억 육박
- 내달 한-우즈베크 방산·군수공동위. FA-50 등 진출 기대
- 태국 국방부 고위인사들 기품원 방문
- 한미, 함정 이어 항공기·전차 무기체계 MRO 협력 확대
- 이스라엘 "韓에 '아이언돔' 기술 공유 제안"

[글로벌]

- 포탄 자체 생산 늘리는 유럽. 韓 방산, 현지화로 대응
- 트럼프판 '스타워즈'. 243조원 규모 골든돔 구축 선언
- 트럼프, 日과 통화서 "미국산 전투기 사달라"
- 中, 브라질 방산업체 지분 인수 모색. 영향력 확대 우려
- 英 브렉시트 5년 만에 EU와 리셋. 안보 협력 등 강화
- EU, 236조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
- 루마니아 대선, 니쿠쇼르단(야당)이 최종 당선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1Q25 노선별 운임단가 추이

1Q25 운임 단가 추정에서 FSC와 LCC의 온도차가 컸음. 사고 등 여파로 FSC 선호되며, LCC 대비 FSC의 운임이 더욱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됨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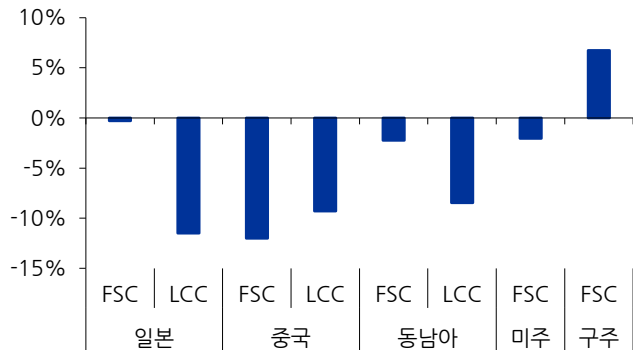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9)

[1Q25 노선별 운임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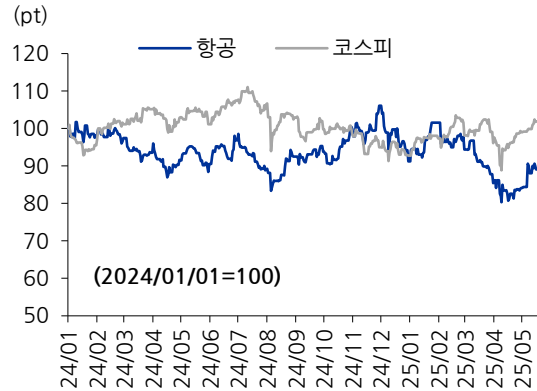
- 1Q25 운임 단가는 FSC와 LCC간 온도 차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됨
- 일본 노선에서는 LCC 운임이 전년비 12% 하락한 반면, FSC는 전년비 수준을 유지함. 동남아 노선은 LCC가 8% 하락, FSC 2% 하락하며 동일하게 LCC의 상대적 약세가 확인됨. 사고 등 영향으로 FSC 선호 현상 속 온도 차 발생한 것으로 판단. 미주와 구주는 FSC 전체로 각각 2% 하락, 7% 상승으로 확인. 미주는 2Q 이후로도 공정위 조치에 따라 전년비 하락 추세 이어질 전망

Key Chart: 노선별 운임단가 추이(vs 전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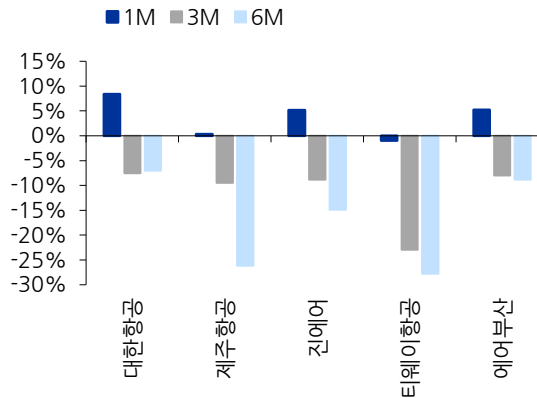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5/19~05/25)

[여객/화물]

- 항공사 단독 노선, 1년 새 17% 늘어. 경쟁 피해 틈새시장
- 이스타항공, 7월 26일 부산~푸꾸옥 단독 정기노선 취항
- 티웨이항공, 인천-타슈켄트 노선 신규 취항
- 유커 기대감. 관광업 "중국 관광객, 큰폭으로 늘 것"
- 에어프레미아, LA 노선 주 10회로 증편. 야간편 신설
- 에어로케이, 청주-오비히로 하늘길 신규취항

[기업별 이슈]

- 아시아나, 후쿠오카 등 日 주요 노선 11월부터 예약중단
- 티웨이, 소노 인수 임시주총 내달로 연기. 공정위 심사 영향
- 티웨이항공 "인천~파리 27만7900원부터". 여름 특가
- 에어프레미아 완전히 품는 타이어뱅크, 유증감자 동시 진행

[기타]

- 산은 "한진칼 출자금, 항공업 구조개편 완료시까지 유지"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비율' 내달 나온다
- 항공사들, 내달 유류할증료 일제 인하
-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가처분 기각. 통합 항공사 출범 속도
- 한국-일본 4개 공항, 6월 상대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 "성수기 공식 깨졌다". 이상기후에 뜨는 '6월 동남아'

[글로벌]

- 비행기 '입석 좌석' 현실화되나. 일부 해외 LCC 고려 중
- 델타항공, 북미 항공사 만족도 조사 3년 연속 1위
- 에어버스, 세계 최초 GTF 엔진 장착된 A321XLR 인도
- 사우스웨스트, 보조배터리 규정 강화. 28일부터 사용 제한



Weekly Keyword

풍부한 상선 수주 모멘텀

시장에서 기대하는 LNGC 발주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기타 선종에서도 풍부한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보되는 중. 미국의 대중 압박 속, 한국으로 전환되는 물량도 계속 나오는 중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9)

[풍부한 상선 수주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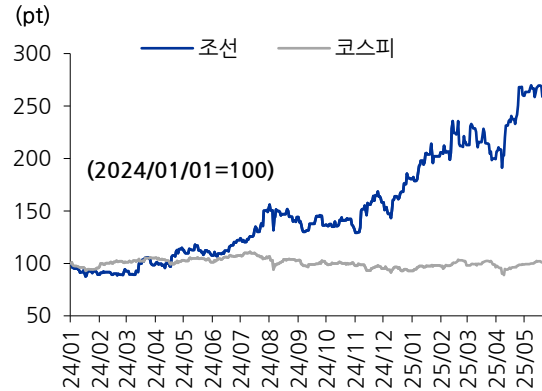
- 미국 USTR 규제, IMO 중기조치 채택 이후 소강 상태였던 신조 발주 기대감 커지는 중. 시장에서 기대하는 미국 LNGC 발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이 기타 선종(탱커, VLEC, 컨선)에서도 충분한 파이프라인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의미 있는 점은, 해당 파이프라인들에서 중국 조선소가 수주 경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 올해 상선 신조 발주 흐름은 호황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Key Chart: 풍부한 상선 수주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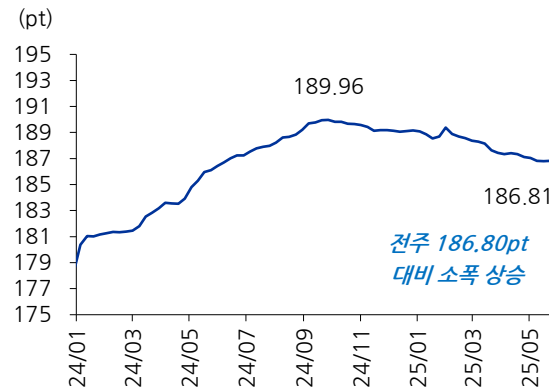
내용
■ 렉슬, 셔틀 탱커 2 척 발주 → 한국 조선소 수주 경쟁
■ 印 ONGC, 5 억 달러 VLEC 발주 → 한국 조선소 수주 경쟁
■ ONE 대형 컨선 최대 12 척 발주 → HD 현대 수주 가능성
■ 하팍로이드 컨선 20 척 발주 → 중국에서 한국 전환 가능성
■ MOL 美대중 압박에 中 LNGC 발주 중단 → 한국 수주 기회
■ 하반기 미국發 LNGC 발주 → 한국 수주 기회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5/19~05/25)

[상선/해양]

- HD현대미포, LNGBV 2척 추가 수주
- 인도 ONGC, 5억 달러 VLEC 발주. 한국 조선 3사 '정조준'
- HD현대, ONE서 '3.4조원' 대형 컨선 최대 12척 수주 임박
- HD현대미포, 트라피구라와 암모니아 추진 가스선 4척 계약
- 하팍로이드, 中 발주 예정 컨선 20척두고 한중 고민
- MOL 미국 대중 압박에 中 LNGC 발주 중단

[특수선]

- 한화오션, 특수선 조직 확대. 계열사 '글로벌 인재' 발탁
- 방글라데시, 한국 잠수함 20억달러에 6척 도입 추진
- HD현대중공업, 루마니아서 해군력 증강 파트너 초청
- 제너럴다이내믹스 경영진, 조선 설계회사 디렉 방문
- SK오션, 제너럴다이내믹스와 합정 건조 기술 교류 본격화

[기타]

- 美 "中 항만 크레인 교체". HD현대, 신시장 확대 기대
- 첫 '미국산 LNG운반선' 한화가 만들 것
- 한화오션, 美 필리조선소 매출 10배 성장 목표 제시
- 삼성중공업, 카타르 향 LNG선 스틸커팅 개시
- HD현대마린엔진, 케이조선과 397억 규모 엔진 공급 계약
- HD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금교섭 상전례
- 北 청진조선소 진수식서 사고. 김정은은 "범죄적 행위"

[글로벌]

- 印 "원유운반선 112척 건조". 한국 조선업에 기회 열리나
- 美, 2037년까지 선박 최대 448척 발주. 한국 조선업 기회
- 미국 멕시코만 첫 LNG 벙커링 허브, 건설 인허가 확보